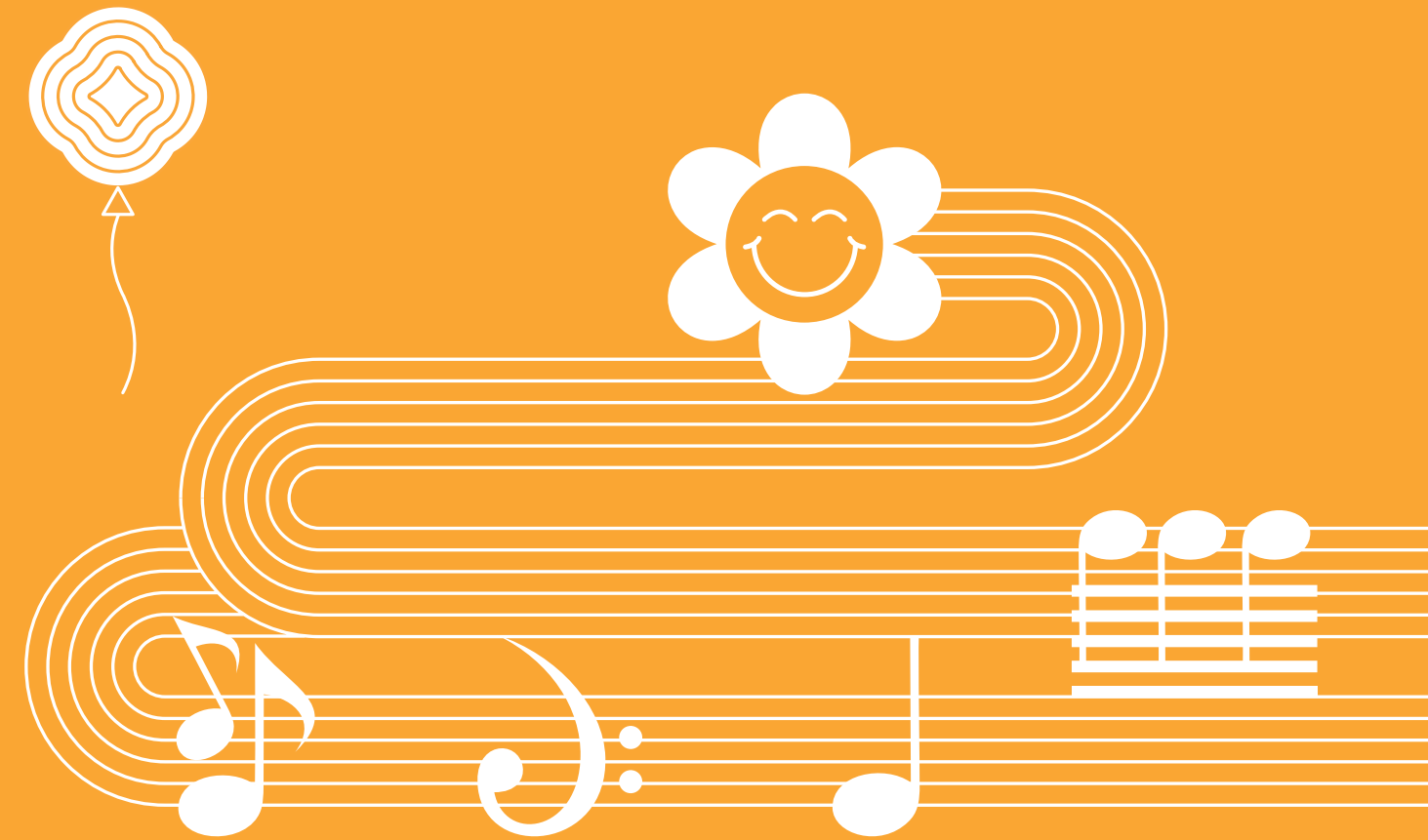


소소한 즐거움이
스며드는 하루,
기분 좋은 순간을
만나봅니다.



즐거게



☀️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나무들이 연둣빛으로 차오르는 계절입니다. 살랑이는 바람처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요즘, 하루하루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도 소소한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KPS STORY> 4+5월호에서는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소소한 순간들이 조금 더 즐겁기를, 그리고 그 끝엔 기분 좋은 성취가 기다리길 바랍니다.

즐거움이 머무는 작은 순간들

#ilovekps

I




휴일에 즐기는
느긋한 천변 산책
- 김*아




4월,
친구들과
강릉으로 떠난
환갑여행
- 연*희



 함께 만드는 KPS STORY

즐거운 순간을 찰칵!

#ilovekps는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코너입니다.

<KPS STORY> 이번 호 '즐겁게' 주제와 어울리는
일상의 즐거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다음 호 주제는 한전KPS SNS를 통해 공개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이벤트 경품: 음료 기프티콘



L

O

K

V

E

P

S




퇴근길,
좋아하는 떡볶이를 포장해서
집 가는 순간
- 남*




학창시절 친구들과
2세대까지 함께한
즐거운 여행
- 황*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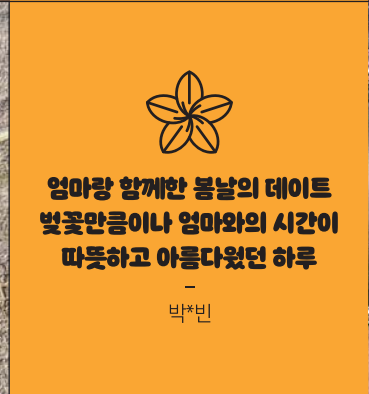

푸른 잔디 위
따뜻한 봄바람 맞으며
좋아하는 음악과 맛있는
음식이 함께하는
유직페스티벌
- 임*연




함께 산책하고 놀며
강아지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들
- 박*영




봄맞이 피크닉 파티!
회사 동기들과 함께한
도시락 만들어오기 프로젝트
- 임*영




엄마랑 함께한 봄날의 데이트
벚꽃만끽이나 엄마와의 시간이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하루
- 박*빈



발행인 김홍연
편집인 정영우
발행처 한전KPS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전화 061-345-0114 팩스 061-345-0115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02-786-2999)
기획·편집·진행 김정필, 한장봉, 김영권, 김누리

한전KPS 웹진은 www.kps.co.kr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6

우리 별 여행

생기 가득한 봄날
어찌 나주가 즐겁지 않으랴

30

나누는 KPS

우리 사업소 동네방네 맛집 소개
한전KPS 본사 구성원이 추천하는
전라남도 나주 맛집

32

ESG

탄소중립을 넘어
생물다양성으로

04

#ilovekps

즐겁게
함께 만드는 KPS STORY

08

CEO Letter

한전KPS 41주년 창립기념사

12

궁금한 KPS

즐거움을 나눕니다

36

역사 속 빛나는 순간

세상을 돌리는 힘
전기의 길을 밝힌 발전기

38

AI 정복하기

AI 시대,
업무의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다

42

KPS NEWS

14

생각하는 KPS

작은 성취가 주는 즐거움

18

행동하는 KPS

한전KPS인상 수상자를
만나다

22

만나는 KPS

유쾌한 에너지로 세상을 밝힌다!
노라조 조빈 인터뷰

46

독자 참여

47

와글와글 KPS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전KPS 41주년
창립기념사

41
YEARS
ANNIVERSARY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의지로 새로운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한전KPS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전KPS 창립 41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외 전력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1년 동안 한결같은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정부, 한국전력, 고객사, 협력사,
그리고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1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은 팬데믹,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경쟁심화, 기후위기와 같은 초불확실성이 만연해
왔지만 우리는 원전 정비 수출과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 그리고 디지털 기반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의 발판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산업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신재생의 균형 있는 확대, 석탄발전 감축, 가스터빈 기반 LNG 발전 강화, 그리고
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등은 발전정비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전KPS는 전력설비의 단순 정비를 넘어 기술과 고객가치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력산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우리는 창립 4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전과 혁신의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신성장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합시다!

우리는 “신(新)동력으로 100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라는 신성장 비전 아래 원전수출, 해외화력, 성능개선, 신재생, 원전특화의 5대 신성장사업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전KPS는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 주요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졌고, 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의 안정적 수행으로 ‘K-정비기술’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체르노보다 원전 설비개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원전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성능개선, 고장정지 제로(Zero), 공기지연 제로(Zero)를 연속 달성해 고객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과 인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람과 기술이 희망인 한전KPS는 첨단기술 기반의 정비 혁신을 선도해야 합니다.

AI·로보틱스·디지털 트윈·3D프린팅 등의 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최적의 정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선도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와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세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역동적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은 가장 기본이자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이 뿌리내려야 하며, 중대재해 제로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전은 동료의 생명, 고객의 내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기본이자 가치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지킬 때, 국민은 한전KPS를 더욱 신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문화를 철저히 내재화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상생의 노사문화와 신뢰는 우리 조직의 뿌리입니다!

한전KPS는 지난 40년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는 경영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하는 노사문화는 한전KPS가 진정한 지속성장 기업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전KPS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직원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와 해외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땀방울이 있었기에 한전KPS는 어려움을 당당히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41주년은 단순한 과거의 결실이 아닌,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갈 두 번째 50년, 그리고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 한전KPS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영예의 한전KPS인상을 수상하신 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에 대한 한결같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가족과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사 장 김 흥 연



즐거움을 나눕니다

Q1

“와! 너무 즐겁다!”
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37.3%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에서
시간을 보낼 때



29.5%

가족 혹은 친구들과 왁자지껄
시간을 보낼 때



25.3%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때



7.9%

직장에서 내 활약으로
성과를 냈을 때

무심코 흘린 웃음, 오래 기다린 기쁨, 함께여서 더 좋았던 그때.
각자의 삶 속에서 즐거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우리가 마음을 설레게 했던 즐거운 기억은 무엇이었을까? 한전KPS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았다.

Q2

오늘도 출근! 일할 때 나는 언제 즐거움을 느끼나요?

48.9%



동료와 협업이 잘 되어서
좋은 시너지가 날 때

25.8%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할 때

18.4%

칭찬이나 피드백을 통해
성장을 체감할 때

6.9%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걸 볼 때

Q3

즐거움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39.7%



긍정적인 마음가짐

32.8%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24.9%

여유로운 시간

2.6%

새로운 경험과 도전

Q4 나에게 즐거움을 더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

70%

연인이나 특별한 사람

17.9%

가장 친한 친구

8.9%

직장 동료

3.2%



‘아주 보통의 하루’



작은 성취가 주는 즐거움

소확행에서 아보하로 가는 우리 사회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한 하루라도, 괜찮다고 느껴본 적 있는가?
때때로 작고 조용한 성취가 우리에게 더 깊은 만족을 준다. 몰입의 순간, 뇌는 ‘잘했어’라는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삶의 동력을 다시 느끼게 된다. 반복되는 무기력 속에서도, 아주 평범한 하루에 다시 기대게 되는 이유. 그것은 작고 느린 기쁨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일지 모른다.

지친 마음이 바라는 하루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인 소확행 대신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가 많이 쓰이고 있다. 아보하는 특별한 사건이나 성취 없이도 평범하고 무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

필자 역시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하며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보내기를 바란다. 때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지는 이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보하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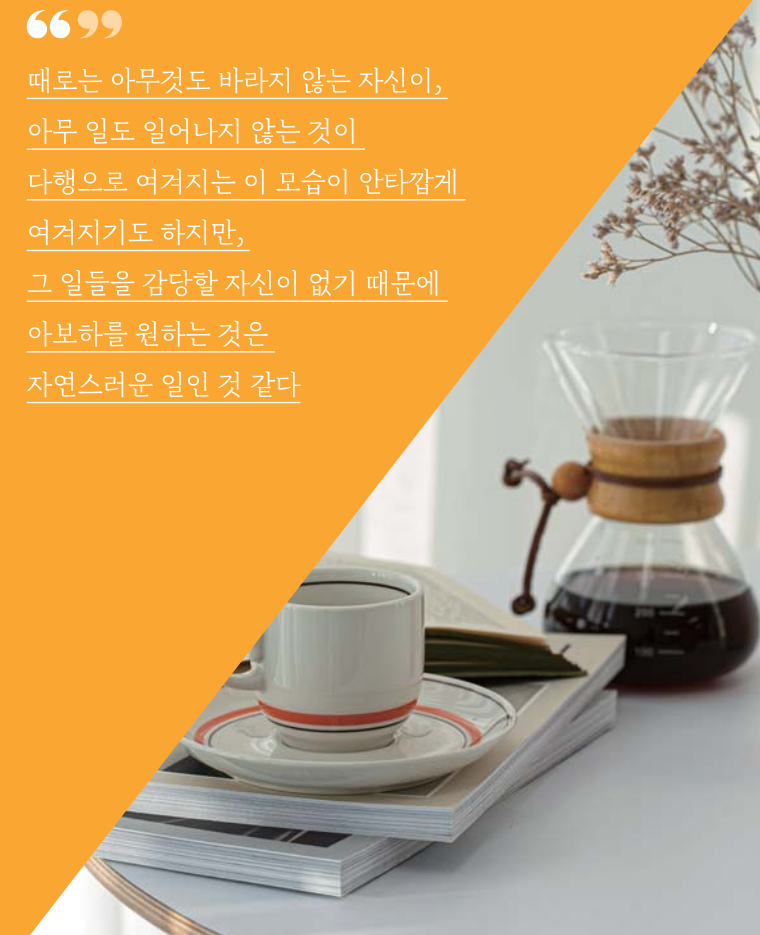
어쩌면 커다란 목표 앞에 무너졌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느샌가 작은 성취를 이루려는 시도조차도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기에 성취감 자체를 배제하고서라도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이 찾아오곤 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뇌 깊은 곳에서 오는 미세한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작은 즐거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보통의 하루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하였을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며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

때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지는 이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보하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

작은 성취의 힘
소소한 행복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로
예상치 못한 기쁨, 도파민



A VERY NORMAL DAY



“”

뇌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경험할 때,
이 보상경로를 통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한다.
도파민은 뇌에 "이 행동은 좋은 거야,
다시 해!"라는 신호를 보내며,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고
삶에 긍정적 에너지를
느끼게 만든다

도파민과 보상경로
몰입이 주는 삶의 에너지
쾌락보다 깊은 만족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뇌를 움직인다

우리 뇌에는 ‘보상경로’라 불리는 신경회로가 있다. 보상경로는 뇌 깊숙한 곳에 있는 SN/VTN(흑질/복측피개부)에서 시작해, 줄무늬체(조가비핵 포함), 눈확이마겔질(OFC), 그리고 앞띠겔질(ACC) 같은 부위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회로는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동기를 얻고,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뇌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경험할 때, 이 보상경로를 통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한다. 도파민은 뇌에 “이 행동은 좋은 거야, 다시 해!”라는 신호를 보내며,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고 삶에 긍정적 에너지를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이 보상경로는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이 약화하기도 한다. 특히 좌절이나 무기력, 우울감이 지속되면 조가비핵(putamen)과 눈확이마겔질(medial OFC) 사이의 연결성이 약해져, 작은 즐거움에 반응하고 그 순간에 머무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주 보통의 하루’에 더 큰 기대를 걸게 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작은 성취를 경험할 때, 뇌의 보상경로는 다시 활발히 작동하기 시작한다. 특히 집중과 몰입 상태에서 얻는 만족감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며, 반복적인 행동의 동기를 강화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몰입 경험을 ‘flow(몰입)’라고 부른다. 몰입은 우리가 감정을 잃지 않고,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경험이다.

재밌게 무언가를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흐른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레고들로 작품 만들기에 있어 수많은 브릭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는 데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게 된다. 어느 순간 조각들이 구조물이 완성되고 구조물이 또 다른 구조물과 연결되며 하나의 완전체가 되었을 때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레고라는 세계에 흠뻑 빠져 실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만두고 싶지 않은 그 경험 바로 그것이 몰입이다.

몰입, 삶의 동기를 되살리는 열쇠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는 몰입(flow)의 개념을 정립한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몰입은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도전과 개인의 능력 조화가 몰입에 있어 중요하다고 한다. 만약 도전하고자 하는 과제의 수준이 개인의 능력보다 월등히 높다고 인지하면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반대로 과제의 수준이 개인의 능력에 비해 너무 낮다고 인지하면 무관심하게 되거나 지루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도전과 능력 사이에서 균형이 맞아야 최적의 몰입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전-능력의 균형 외에도 몇 가지 조건들이 함께 갖춰지면 좋다.

우선, 명확한 목표가 있는 활동이 몰입을 더 쉽게 유도한다. 막연히 “그냥 해본다”보다는 “이 한 문단만 써보자”, “이 작은 부분만이라도 완성해 보자”처럼 작은 목표가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활동일수록 몰입이 잘 일어난다. 예컨대, 요리나 퍼즐, 그림처럼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바로 확인되는 작업이 그런 예다.

마지막으로,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다. 스마트폰 알림, 소음, 주변의 간섭 등은 몰입의 흐름을 쉽게 끊어버릴 수 있어 짧은 시간이라도 몰입만을 위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 보는 것이 좋다.

크고 깊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몰입을 경험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떠한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의 결과로 업적이 따라온 셈이다.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애써 쓴 것도 아니고, 부와 명예에 대해 의식적으로 얻고 싶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여겨진 일들을 자발적으로 몰두한 것이다. 몰입은 그렇게 우리를 ‘성과’가 아닌 ‘의미’로 이끄는 상태다.

이러한 몰입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순간적인 즐거움보다는 지속적인 만족이 주는 힘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

작고 사소한 성취,
소중한 하루의 몰입,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꿈들이 모여
언젠가 나의 삶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행복을 오래 남기는 감정, 만족

만족과 쾌락의 차이는 결국 ‘행복한 삶’과, ‘쾌락의 삶’의 차이이기도 하다. 쾌락은 순간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만족은 그렇지 않다. 만족은 도전에 맞서야 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며 기술과 노력을 총동원할 때 얻어지는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과 그 과정에서의 망설임이 뒤따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감정이기에 만족은 깊고 오래 남는다.

어린 시절에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떤 꿈을 꾸기 전에 현실성을 따져보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그리고 꿈을 자유롭게 쉽게 꾸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꿈을 쉽게 꾸는 아이들이 부럽다. “나도 저러한 시간이 있었는데...”라며 그때의 나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꼭 거창한 목표만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작고 사소한 성취, 소중한 하루의 몰입,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꿈들이 모여 언젠가 나의 삶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한전 KPS인상 수상자

위기에 강한 27년 여정,
주요 전담반(TFT) 이끌며
책임을 완수하다

최병길 신세종사업소 소장

한전KPS 최고 영예로 꼽히는 '한전KPS인상' 올해 수상자는 신세종사업소 최병길 소장이다. 30년 가까운 근무 동안 한전KPS 주요 전담반(TFT)을 거치며 위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수많은 난관에도 독심 있는 책임감으로 팀을 아우르며 새로운 기술을 안착한 명장이다.



무사고, 무재해로 신세종 시운전 완벽 수행

<시운전 백서> 창간해 기술 전수 힘써

“한전KPS인상 수상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그 바탕에는 여러 직원과 동료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땀이 있습니다. 저 혼자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기에 묵묵히 함께해 준 동료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병길 소장은 수상 소감을 묻는 말에 동료와 가족을 먼저 앞세웠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원칙으로 ‘사람을 끄는 그다운 답변이었다.

“우리 회사가 언뜻 장비와 시스템에 의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 사이에 믿음과 존중이에요. 기계에 치이면 고치고 개선하면 되지만, 사람에 치이면 한 달이고 1년이고 회복이 쉽지 않거든요. 조직에서 신뢰를 잘 쌓아가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시운전이란 실제 운전을 앞두고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세종사업소의 성공적인 시운전과 안정적인 경상 정비 체계를 구축한 최병길 소장은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시운전 때는 그야말로 다 중요합니다.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마주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해왔던 정비 수행과 다른 새로운 업무, 정비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의 미흡한 점 등 공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변수와 난관을 극복한 노하우를 세심하게 기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기록을 우리의 기술 경험으로 전수하기 위해 1,400페이지 4권에 달하는 <시운전 백서>를 창간했어요. 앞으로 시운전하는 사업장이 많아질 텐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병길 소장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세계 최대 용량의 고효율을 자랑하는 최신 가스터빈에 관한 분해와 조립 장비를 개발하는 국산화 전담반원으로도 활약했다. 외국사의 보안과 견제가 있었지만, 향후 계획예방정비(OH) 공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

한전KPS인상 수상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그 바탕에는 여러 직원과 동료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땀이 있습니다. 저 혼자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기에 묵묵히 함께해 준 동료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전KPS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에 출입과 보안이 철저했어요. 직원과 함께 새벽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현장 측정과 답사에 집중했고, 결국 국산화 장비를 개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최병길 소장은 앞으로 종합기술원과 협력해 최신 가스터빈에 적용할 수 있는 국산화 장비 트레이닝 복합 설비 센터를 갖추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목표다.

**회사 최초 EPC 사업 수행하며
 “우리가 해냈다” 환호성 터진 순간**

최병길 소장은 간부로 14년간 전국 현장을 누비며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중 2013년 현장 소장으로서 있었던 GS 구미 성능개선 공사와 한전KPS 최초 EPC 사업을 수행했던 포스코광양 성능개선 프로젝트는 도전이자 성장의 시간이었다.
 “포스코광양 시운전 당시, 하루만 연기되더라도 1.5억 원에 이르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부담감이 컸죠. 모든 직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중한 결과, 시운전 마지막 날 밤 11시에 ‘우리가 해냈다’라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함성 속에서 희열이 느껴졌어요. 페널티 없이 완수 조건을 모두 이뤄낸 극적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
사전에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공유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서로를 이해하고
따라줄 수 있도록
꾸준한 소통에
힘쓰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잊지 못할 기쁨의 순간으로 남았지만, 과정은 절대 녹록하지 않았다. 발주처의 안전보건 체계가 더욱 까다로워진 데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원활한 업무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위 부서나 사업소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매 순간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초 EPC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우리 회사 발전에도 큰 분수령이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당시 경험은 신세종사업소 시운전 과정에서 산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이는 전담반 특성상 협력이 가장 중요할 터. 최병길 소장에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물었다.

“평소 상황에서는 사람 간 트러블이 그리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기나 돌발 상황 같은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갈등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죠. 사소한 감정이라도 쌓여 굵지 않도록 평상시에 좋은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공유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서로를 이해하고 따라줄 수 있도록 꾸준한 소통에 힘쓰는 편입니다.”



**가족과 함께 걸어온 길
 동료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

최병길 소장은 경상도, 전라도, 인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사업소 현장을 두루 다니며 전담반원이자 기술명장으로 활약해 왔다. 그런 그에게 곳곳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하나뿐인 아내와 아들은 늘 고마운 존재다.
 “아들이 초등학교만 네 번이나 전학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만 전학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아내와 주말부부가 되었는데 그 기간에 아내가 치매 걸린 친정엄마까지 돌보면서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런 탓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준 아내에게 무척 고맙습니다. 포스코광양 성능개선 프로젝트 당시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 입학해 큰 기쁨을 주었어요.”

시상식에 함께해 자리를 빛낸 최병길 소장 아내 윤성희 씨는 “남편은 노력하는 스타일로 마음먹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 게 장점”이라고 전했다.
 최병길 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동료로 2013년 GS 구미 성능개선 공사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한 안효진 선임과장을 떠올렸다.
 “27년간 일하면서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났지만, 저도 팀장이 처음이었는데 그도 당시 선임과장이 처음이라 서로에게 각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안효진 선임과장은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나와 술선수범해 주었어요. 힘든 여건 속에서 슬기로움이 빛나는 동료였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돈독해진 덕분에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소중한 한전KPS 인연이 되었습니다.”

“”
묵묵히 버텨준 아내에게 무척 고맙습니다.

유쾌한 에너지로 세상을 밝힌다!



광주FC 홍보대사
가수 노라조 조빈

광주는 지금 원빈, 현빈보다 조빈!

한전KPS가 광주FC 홍보대사 가수 노라조 조빈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광주FC 팬이 된 특별한 계기부터 데뷔 20년차 내공으로 전하는 찐한 응원과 열정까지 들여다보았는데요.

한전KPS 대표 광주FC팬 나유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광주FC 찐팬 조빈님의 이야기! 한 번 만나 볼까요?





WOW

© 나리 아나운서 제공

“ ”

한전KPS에서 광주FC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마치 전기가 퍼져나가듯 광주FC도 널리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나리 아나운서 유쾌한 에너지로 세상을 밝히는 특별한 주인공 바로 가수 노라조 조빈님입니다! 저희 섭외 받으시고 많이 놀라셨죠?

조빈 한전KPS에서 광주FC를 사랑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광주FC를 좋아하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정말 설레었어요. 한전KPS에서 광주FC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마치 전기가 퍼져나가듯 광주FC도 널리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나 요즘 조빈님 거주지가 광주 아니냐 할 정도로 광주 월드컵 경기장 '광월경'에서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조 처음에는 이민기 선수와의 친분을 시작으로 경기를 한두 번 보다가 빠져들게 되었죠. 광주FC 팬분

들과 쌓여가는 어떤 마음과 정에 어느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가 친구 만나러 가듯이 점점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거리가 짧아지고 있어요. 요즘 같아서는 뭐 한 150km도 안 되는 곳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나 제 핸드폰을 보니 가족들보다 조빈님과 찍은 사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팬 서비스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조 제가 광주FC 홍보대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라조 조빈이라는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드리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요. 또 팬분들이 제 사진을 SNS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광주FC 이야기도 함께 퍼지게 되

니까 사진을 많이 요청받아도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화려한 복장으로 응원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전부 사비로 준비하셨다고...?

조 많은 광주FC 빛고를 팬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게 됐어요. 어느 날 그냥 제 옷(무대 의상)을 입고 머플러를 들고 있는데 중계방송에서 저를 찍어주셨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대 의상을 꺼내 입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광주FC의 광고판이 되고 싶었어요.

나 조빈님 본인은 “광주는 나의 사명이자 인생의 재미”라고 말하며, 팬들이 SNS에 광주FC 관련 게시글을 올릴 때 조빈님을 해시태그를 달면 이를 직접 스토리로 공유하고 계신데요. 취미로 시작한 일이 커지면 부담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에너지의 원천이 궁금합니다.

조 제 MBTI가 인프제(INFJ)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향적인 부분도 많아요. 먼저 나서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저를 좋아해 주는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는 스

이 인터뷰는 '와글와글 KPS'에 접수된 신청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광주FC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조빈 씨를 만나, 그의 열정은 어디서 오는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와글와글 KPS'를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

타일이예요. 그래서 팬들이 SNS에 경기 후기를 올리면 팔로우 수와 상관없이 제가 스토리를 공유해 드려요. 이를 통해 팬들이 전달하고 싶은 광주FC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죠. 가끔은 팬들이 먼저 부탁해 오기도 하는데, 그런 소통이 저에게도 기쁘고, 팬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느낌들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지금도 대한민국 전력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한전KPS 직원 여러분께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조 한전KPS, 너무나 대한민국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고, 만약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축구를 할까요? 대한민국의 활력과 삶의 질을 높여준 한전KPS!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약속드리는 건데 제가 올해는 솔로 활동을 할 거거든요. 광주FC 내려갈 때 제가 한전KPS 가서 체육대회 같은 행사 한 번 가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으로 한전KPS에서 단체로 광주 월드컵 경기장 홈경기 때 관람 오시는 것도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물과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광주FC의 조성권, 이민기, 최경록, 변준수 선수의 등번호를 모두 더하면? 숫자 몇이 나올까요?

조 어려운데요? 20?

나 네, 정답입니다. 이 20이라는 숫자 조빈님께 해 아주 특별한 숫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5년 8월 2일에 데뷔한 노라조!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유쾌함과 에너지를 전해줬던 노라조 조빈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KPS는 노라조 그리고 조빈님의 앞날을 응원하고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길 항상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한전KPS 유튜브 채널에서
광주FC 홍보대사
조빈님의 인터뷰 풀영상을
만나보세요!



유명사도
있어요!



원빈, 현빈, 보란

조빈~!

생기 가득한 봄날 어찌 나주가 즐겁지 않으랴

봄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다.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생명력 가득한 활기찬 봄날 즐겁게 떠나기 좋은 곳이 있다.
천년 목사 고을 나주가 주인공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여행객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언뜻빛 나주로 떠나보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라 제일의 도시

나주읍성 고살길

나주시는 인구 11만 남짓한 도시다. 하지만 120여 년 전만 해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全羅道)’라 불렀을 정도로 나주의 위상은 대단했다. 조선시대 ‘작은 한양’이라 불리며 흥왕했으나 구한말부터 쇠락의 길로 접어들더니 일제강점기엔 나주읍성과 사대문마저 허물어졌다. 천만 다행, 현대에 와서 읍성과 사대문이 복원되었다. ‘나주읍성 고살길’은 금성관을 시작으로 사대문을 따라 이어진 3km 구간이다. 천년의 역사와 이야기를 듣고, 보고, 체험하기에 제격이다.

길의 시작은 금성관에서 출발한다. 금성관은 조선 성종 때 세운 나주목 객사 건물로 그 규모가 호기롭다.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단층 팔작지붕이다. 칸 간격이 넓고 높이가 높아 위엄이 느껴진다. 힘찬 붓놀림이 인상적인 현판은 원교 이광사가 쓴 것이다. 해서, 초서, 전서, 예서에 능통했던 그는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에 견줄만한 서예가다.

숫을대문 사이로 한옥의 멋이 흘러나오는 나주목사내아는 1825년에 지어진 나주목사의 관사였다. ‘거문고 소리에 학이 춤추는 곳’이라 하여 ‘금학헌’이라 한다. 금성관이 기골 장대하다면 내아 금학헌은 아담하다. 마루에 앉아 소담한 이야기꽃을 피우기 좋은 이곳은 현재 숙박 공간으로 활용된다.

나주읍성은 조선시대에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지금과 같은 석성이 되었다. 고살길에서 복원된 세 문을 차례로 마주한다. 먼저 서울 송례문이 연상되는 남고문과 웅성을 둘러 방어력을 높인 동점문, 구한말 동학농민군과 맞서 싸운 서성문을 따라 한 바퀴를 돌면 3.7km를 완주한 셈이다.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8 금성관
☎ 061-339-8613

한국인의 소울푸드

나주 대표 맛집거리, 나주곰탕거리

여행에서 음식의 즐거움을 빼놓을 수 있을까? 나주읍성 고살길을 걸었다면 진한 곰탕 국물에 빠져볼 일이다. 곰탕은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른 귀한 음식으로 황해도의 해주곰탕, 경상도의 현풍곰탕, 전라도의 나주곰탕이 유명하다. 곰탕은 우족과 소꼬리, 양을 재료로 국물을 오랜 시간 고아낸다. 곰국에 밥을 말아 국밥식으로 낸 것을 곰탕이라 한다.

나주곰탕은 나주 오일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뒤 나주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나주곰탕의 특징은 맑은 곰탕 국물과 무, 파, 마늘을 많이 넣어 고기 누린내가 없다. 국물이 맑은 이유는 쇠뼈를 적게 사용하고 쇠고기 양지와 사태 등 좋은 고기를 삶아 육수를 내기 때문이다. 곰탕은 주문과 함께 토렴을 거친 뒤에 고기에 계란지단과 대파를 올려 나온다. 최소한 국밥을 소울푸드라고 여긴다면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진한 국물 맛에 금세 빠져들 것이다.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국물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고기 맛이 일품이다.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와 깍두기의 궁합도 환상적이다.

나주곰탕거리에는 금성관 주변에 조성돼 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하얀집’과 1960년부터 3대째 맛을 지키고 있는 ‘노안집’이 유명하다. 노포마다 세월을 말해주듯 커다란 가마솥들이 부뚜막에 걸려있고 구수한 곰탕 냄새가 진동한다. 슬쩍 엿본 주방 한편에는 고기 고명과 계란지단, 대파 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밀려오는 손님 덕분에 토렴하는 이모님들의 손놀림이 쉼 없이 분주하다.

📍 전남 나주시 금계동

자연의 속도에 맞추다.

도래전통마을, 전남산림연구원

나주곰탕거리에서 차로 20분 정도를 달리면 도래마을에 닿는다. 민속자료로 지정된 19세기 가옥들이 여럿 모여 있는 이 마을은 여전히 건재하다. 수백 년 된 고택은 박제화되지 않고 대를 이어 후손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마을의 고택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후원금으로 개보수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옛것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편리성도 외면하지 않는다. 흥기현 가옥 옆 오솔길을 10여 분을 오르면 마을을 안온하게 감싼 주산봉 기슭에 자리한 계은정에 닿는다. 찾는 이가 적어 호젓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아 망중한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도래마을에서 마음에 ‘썬표’하나 살포시 찍은 뒤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산림연구원으로 향한다.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은 산림자원의 시험과 연구 목적으로 조성된 숲이지만 몇 해 전부터 하늘을 뒤덮은 메타세쿼이아 길이 인생사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나주를 찾은 여행객들이 꼭 찾는 핫플에 등극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원 내에는 다양한 숲길과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게다가 건강 측정 장비와 아로마테라피 등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한나절 숲속 힐링을 즐겨보길 추천한다.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93 도래마을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36-6 전라남도산림연구원
☎ 061-336-6300



우리 사업소 동네방네 맛집 소개



한전KPS 본사 식구들이 애정하는
나주시의 단골집들을 소개합니다.

든든한 한 끼로 활력을 충전하고 싶을 때,
따끈한 국물이나 정갈한 백반이 생각날 때!
소소하지만 확실한 맛의 행복,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 본 추천은 한전KPS의 공식적인 선정이 아닌,
한전KPS 본사 직원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사진 _ 12book12 제공

돌박사나주점

☎ 위치 _ 전남 나주시 재신길 8-9
☎ 영업시간 _ 11:00~19:30(브레이크타임 14:00~17:00 /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사골국물처럼 깊고 진한 국물이 일품인 황태탕 전문점. 한 숟갈 머금은 순간 입 안 가득 퍼지는 구수하고 진한 풍미가 깊은 여운을 남긴다. 청양고추를 추가하면 매콤한 맛으로 변신해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나주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숨은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한전KPS 본사 구성원이 추천하는

신목사골칼국수

☎ 위치 _ 전남 나주시 나주로 83-10
☎ 영업시간 _ 10:00~21:00(브레이크타임 15:30~17:00 /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직접 반죽해 뽑아낸 면발이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칼국수 전문점. 오픈키친으로 조리 과정을 볼 수 있어 신뢰감을 더하고,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대표 메뉴는 버섯샤브칼국수와 바지락 칼국수로, 칼국수를 인원수대로 주문하면 함께 나오는 미니 보리밥 비빔도 별미다. 여기에 직접 담근 김치가 곁들이면 든든하고 완벽한 한 상이 완성된다.



☎ 사진 _ j_h_yuun_ 제공



☎ 사진 _ soos95 제공

한남식당

☎ 위치 _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1
☎ 영업시간 _ 06:00~20:00(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노릇하게 구워낸 갈치, 조기, 고등어 등 다양한 생선구이에 16가지 정갈한 반찬이 곁들여지는 전라도식 백반 맛집. 생선 살이 도톰하고 반찬 하나하나 손맛이 살아 있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 같은 맛을 자랑한다. 깔끔한 밥상에서 고향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전라남도 나주 맛집!



☎ 사진 _ gml2780 제공

☎ 사진 _ dydskdk 제공



왕곡가든

☎ 위치 _ 전남 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 389
☎ 영업시간 _ 11:00~14:00(재료 소진 시 마감,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평일 점심시간에도 대기표를 뽑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생고기 비빔밥 맛집. 그릇에 가득 올린 신선한 생고기와 고소한 참기름이 어우러진 비빔밥은 한입 먹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온다. 따끈한 시래기국이 함께 제공되어 구수한 풍미를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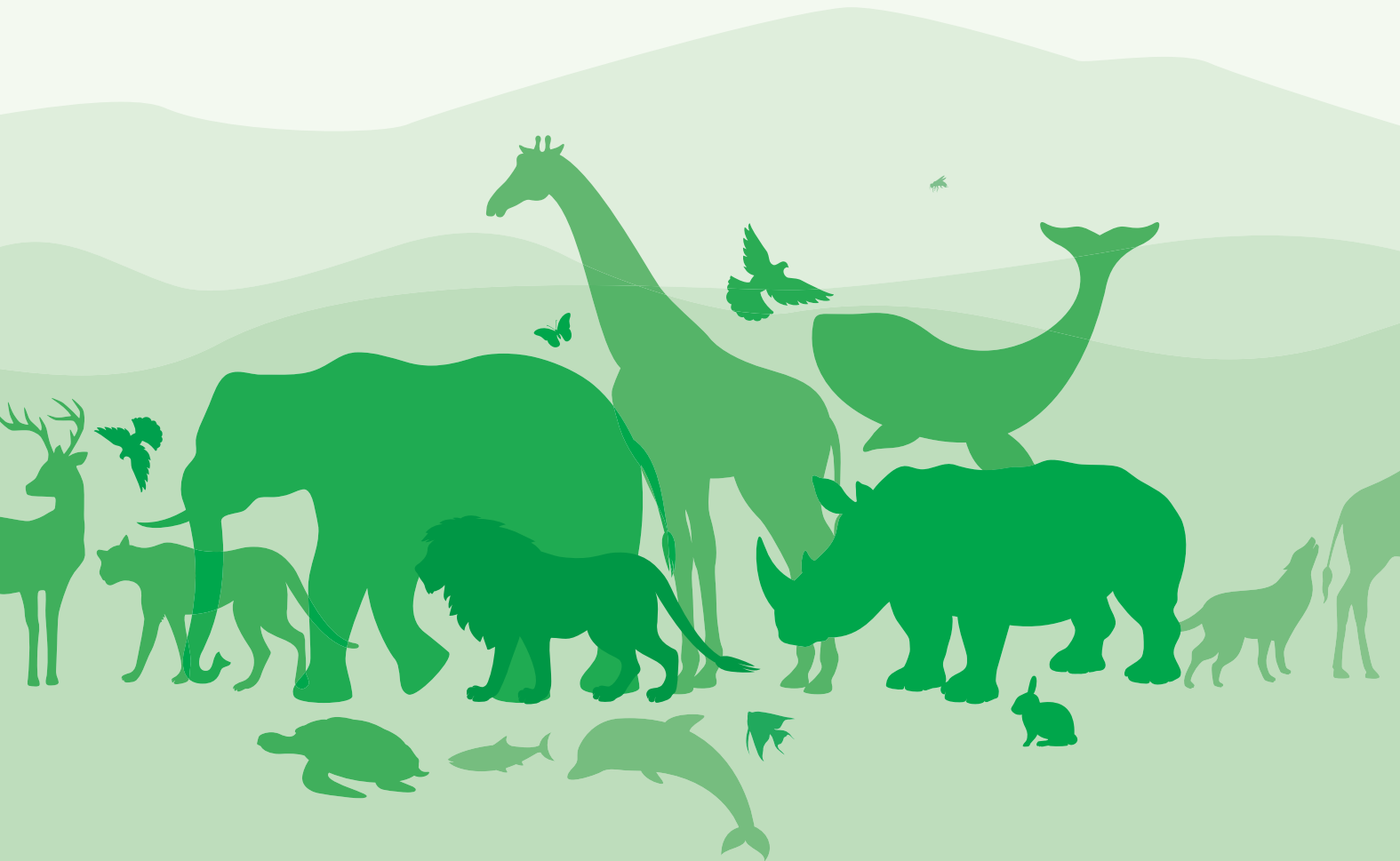
가보리복탕

☎ 위치 _ 전남 나주시 나주로 9-3
☎ 영업시간 _ 10:00~21:00(브레이크타임 15:00~17:00 /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나주에서 복국 맛집을 찾는다면 단연 이곳. 오랜 세월 변함없는 맛으로 현지 단골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복국 특유의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이 속을 편안하게 달래준다. 자극적이지 않아 해장용으로도 딱 좋다. 복지리를 거의 다 먹을 즈음 요청하면 자리에서 사장님이 바로 수제비를 떠 넣어주는 것이 이 집만의 매력이다.



탄소중립을 넘어 생물다양성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위협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가 기업의 ESG경영에 있어 점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ESG경영, 탄소중립과 달리 ‘생물다양성’을 기업경영과 연결하는 것은 아직은 생소하고 낯설다. 그에, 오늘 칼럼에서 글로벌 ESG경영 트렌드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우리 기관의 ‘생물다양성’을 지지하는 활동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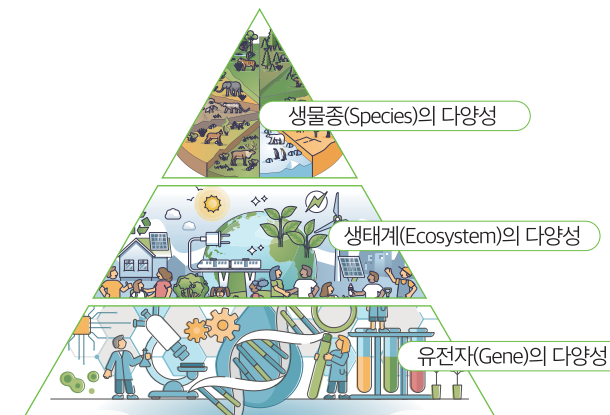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지켜야 할 일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지구상의 생물종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복지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자연의 네 가지 영역인 육지, 담수, 해양, 대기에 걸쳐 존재하는 개념이며, 인간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자연자원과 자연자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위험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인류가 겪을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라고 한다.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자연자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손실한다는 것은 곧 재무적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결국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기업에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며, 자연보호 및 지구와 인간의 공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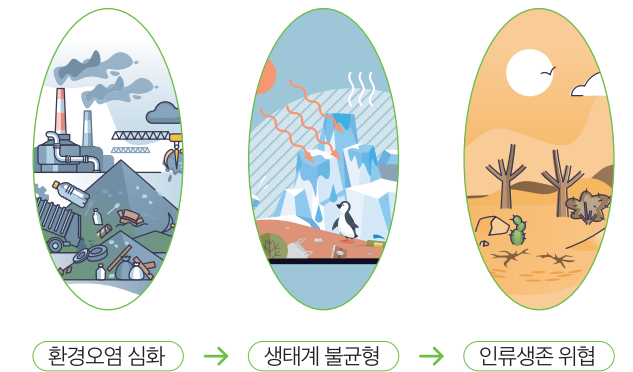
☑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Life on Earth) 전체를 의미



☑ 왜 중요한가요?

수많은 동식물 멸종으로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면?



가속화되는 생태계 붕괴, 무너지는 생물다양성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토지의 용도 전환, 오염, 무분별한 개발, 산불 등으로 인해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으며 많은 생물이 멸종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의 멸종위기는 6,500만 년 전에 발생한 다섯 번째 대멸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생존과 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기에 생물다양성의 위험은 기업의 재정적 손실로 직결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 GDP의 55%가 자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탄소 관리만큼 중요해진 생물다양성, 국제사회의 노력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2022년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달성을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구하며, 경제 및 사회 정책 전반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된 안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사국총회(COP)에서는 생물다양성 전략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는 타 기업들의 노력

글로벌 식품업체 네슬레의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는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 보전한 기업으로 손꼽힌다. 네스프레소는 먼저 커피 재배·가공·유통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비료 사용 및 커피콩 가공·세척 과정에서 많은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관리를 시작했다. 동시에 각 국가의 보호 종과 보호 지역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생태·환경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5년 단위 생물다양성 보존 계획과 목표를 수립·실행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SK이노베이션의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다. 맹그로브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갯벌 혹은 바닷가에 서식하는 태생식물로 전 세계 123개국, 73종이 15만km²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일반 열대우림의 5배에 달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특히,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최일선에서 막아 해안가 피해를 줄이고 해변 침식을 억제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맹그로브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베트남 파빈성 지역의 맹그로브 숲 조성, 호찌민 기술대의 맹그로브 복원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노사 자원봉사단의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SK이노베이션 제공.

한전KPS, 생물다양성 보존 지지 선언하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회사는 2024년 2월에 공기업 최초로 TNFD Forum에 가입하여 환경 보존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한

관심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였다. TNFD는 기업과 금융 회사가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협의체로 포럼 가입은 우리 회사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자연자본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회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경영 전략에 통합하여 공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KPS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실행

우리 회사는 TNFD포럼 가입 이후, 회사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회사의 생물다양성 의존성 등을 파악하고 우선 보호해야 할 생물종 등을 식별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회사의 ESG전략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한 부서만의 업무영역이 아니라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24년 탄·단·지(탄소중립 단순히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사업소에서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일을 독려하고 있다. 그에 2024년 46개의 사업소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소 주변의 주요 명소의 생태계 유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켜나가는 터전, 사업소 주요 활동



서인천사업처는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시 공촌천 일대에서 ‘2050 에코체인지 강강살필래’ 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천 수질개선 및 유해생물 제거를 위해 미꾸라지를 공촌천에 방류하였고, 하천 주변의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국화 등 식재를 식목하여 지역 생태보존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공원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



송전 설비를 관리하는 전력지사에서도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충남전북전력지사가 소재한 아산, 서산 간척지 등은 천혜의 철새도래지이며, 철탐 최상부에 황새가 둥지를 틀거나 조류의 배설물 등이 송전 고장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황새는 국내 200여 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이다. 지사에서는 한국교원대, 한전 등과 협력하여 송전 시설과 황새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전탑에 설치된 둥지를 안전하게 철거하기도 하고, 새끼 부화 후에 보호 관리(추적관리용 가락지 부착, 채혈 작업 등)를 위한 인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감으로 만들어가는 한전KPS형 ESG 경영

우리 회사는 2025년, 생물다양성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ESG경영 요소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포괄하는 ESG경영 추진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지내고 있는 전국 사업소 사우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통해 단지 회사의 ESG경영 목표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보면 어떨까.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참조

생물다양성, ESG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no=96367>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풀무원의 발자국

<https://news.pulmuone.co.kr/pulmuone/newsroom/viewEsg.do?id=2772>

우리의 생존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필요한 5가지 이유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7474/blog-ce-biodiversity-five-reasons>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의 핵심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https://skinnonews.com/archives/85187>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배경 : 제도적 접근 방식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547>

세상을 돌리는 힘 전기의 길을 밝힌 발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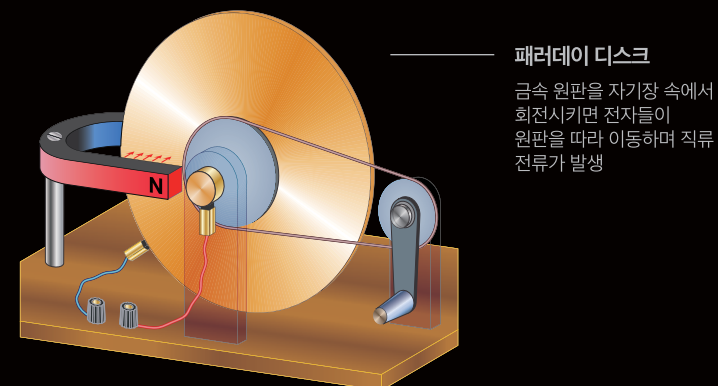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전기다.
밤새 충전해 둔 스마트폰을 들고 집을 나선 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짧은 시간에도 전기는 조용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일상을 지탱하는 이면에는 씬 없이 돌아가는 발전기가 있다.
인류는 언제부터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만들기 시작했을까? 전기 발전의 역사적 여정을 따라가 보자.

전자기 유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발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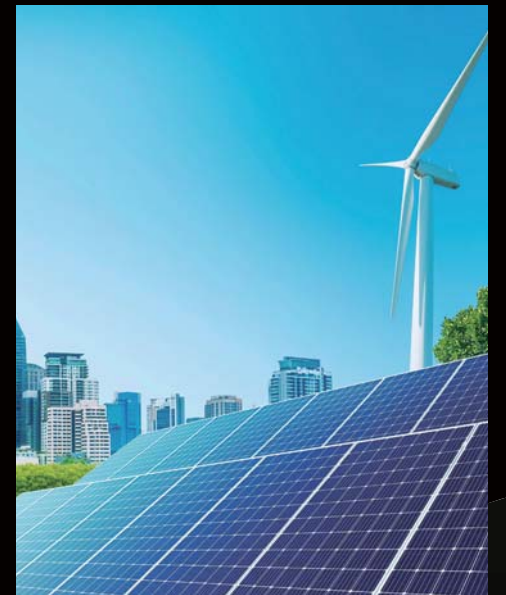
18세기 후반까지 인류에게 전기란 그저 정전기나 번개처럼 특이한 자연현상에 불과했다. 루이지 갈바니가 발견한 생체 전기를 시작으로 볼타의 전지 발명이 이어지며 점차 탐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전기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전자기 유도 발견을 통해 역사상 최초의 전기 발전 장치를 제작한 마이클 패러데이다. 영국 런던의 가난한 대장장이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3살 때 서점의 견습생이 되어 제본 일을 배웠다. 제본 책 중 과학 서적은 특히 패러데이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를 계기로 전기에 대해 독학하거나 강연을 듣는 등 자연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20대 초반 영국 왕립연구소 험프리 데이비 경의 조수가 되며 본격적으로 과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1831년,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실험하던 중 마침내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연철로 만든 둥근 고리의 양쪽에 구리 전선을 감아 한 쪽에는 전지를, 다른 한쪽에는 검류계를 연결했다. 여기서 연철 고리는 전류가 흐를 때는 자석이 되었다가 전류가 끊기면 자성을 잃어버리는 전자석 역할을 했다. 그런데 전지와 연결된 회로를 끊자 움직이지 않아야 할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였다. 또 회로를 연결하자 바늘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를 본 패러데이는 전류의 변화가 연철 자기장에 영향을 미쳤고 자기의 변화가 반대쪽 회로의 전류에도 변화를 일으켰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게 바로 이후 모든 발전기와 변압기의 원리가 된 '전자기 유도(Electromagnetic Induction)' 현상이다.

최초의 발전기와 전류 전쟁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한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를 바탕으로 역사상 최초의 발전기라 할 수 있는 '패러데이 디스크'를 만들었다. 금속 원판을 자기장 속에서 회전시키면 전자들이 원판을 따라 이동하며 직류 전류가 발생하고, 자기장과 운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계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였다. 다만 효율이 낮고 출력 전압이 약해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미흡했다. 이후 여러 과학자들은 패러데이의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동력 공급이 가능한 발전기로 진화시키기 시작했다. 1866년 독일의 기술자 베르너 폰 지멘스가 천연자석 대신 전자석을 사용한 자기여자 발전기를 발명하며 대형 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의 상용화 시대를 이끈 건 토머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였다. 백열전구를 상용화한 에디슨은 1882년 뉴욕 맨해튼에 '펄 스트리트 발전소'를 설립하고 직류 발전기를 사용해 주변 수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로 전기 상용화의 시초였다. 문제는 직류(DC, Direct Current) 특성상 전압 조절이 어렵고 장거리 송전이 어려워 발전소를 도시마다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이러한 직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교류(AC, Alternating Current) 시스템을 개발했다. 교류는 전압을 높였다가 낮출 수 있어 장거리 송전이 가능했고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에디슨은 직류를,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하며 미국 전력 산업의 표준을 두고 '전류전쟁'이라 불리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결국 1892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테슬라 팀이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 발전소 건설권을 따내며 교류 시스템이 대규모 전력 공급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여담이지만 두 천재의 대결은 2019년 영화 <커런트 워>로 제작되기까지 했다.



패러데이 디스크
금속 원판을 자기장 속에서 회전시키면 전자들이 원판을 따라 이동하며 직류 전류가 발생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진화

20세기 들어 다양한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가 개발되었다. 물의 낙차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기,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을 연소해 증기를 만들고 그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는 화력 발전기, 핵분열 반응으로 생기는 열에너지로 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기 등은 각국의 산업과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최근에는 환경 문제를 고려해 신재생 에너지 기반 발전기로 발전하는 추세다. 바람의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켜 탄소 배출이 없고 친환경적인 풍력 발전기가 대표적이며 수소 연료 발전기와 핵융합 실험로(ITER) 등 미래 에너지원을 이용한 고효율 발전기를 현재 연구하고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 모든 발전기의 원리는 결국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원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회전과 자기장'이라는 핵심 개념은 달라지지 않았다. 작은 실험에서 시작된 여정은 현대문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었고 전기가 멈추지 않는 한 발전기는 앞으로도 거듭 진화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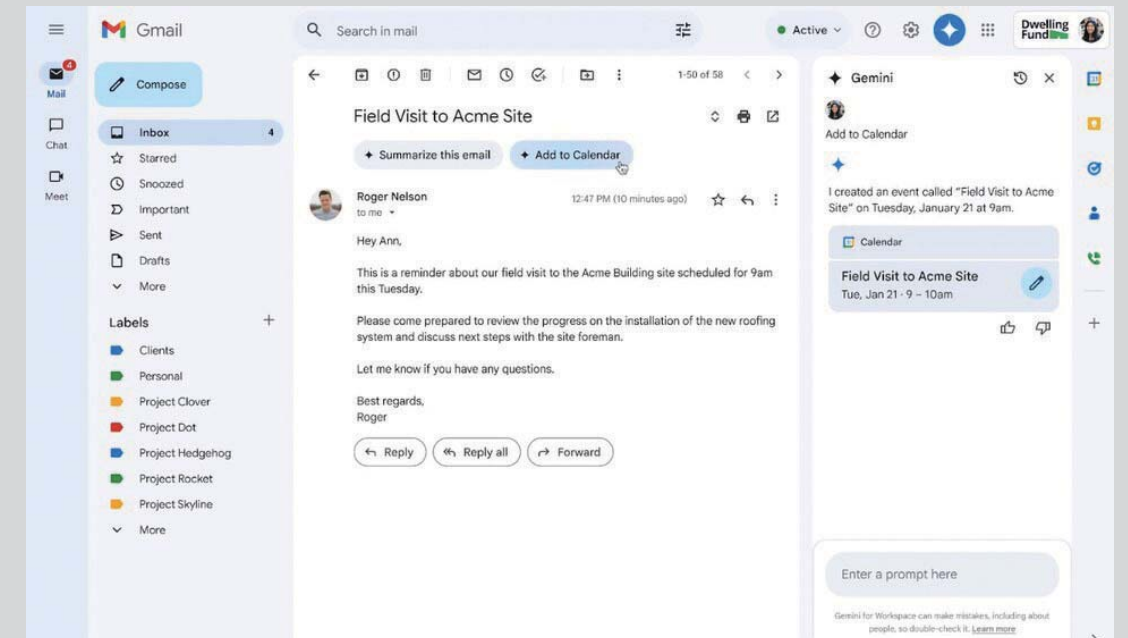
AI 시대, 업무의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다

반복 업무는 AI에게, 우리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메일이 가득한
받은 편지함을 보며 한숨을 쉬신 적 있는가?
회의 일정을 조율하느라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고,
긴 회의 후에는 회의록 정리로 야근까지...
이처럼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직원들의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업무 효율성까지 낮아지게
만든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든든한
'새로운 업무 파트너', 바로 '생성형AI'가 있다.

반복 업무, 이제 AI에게 맡기세요!

UiPath의 글로벌 오피스 워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의 94%가 반복적인 업무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 이
런 배경 속에서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현장에
서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I 및 자동화 도입은
단순·반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이 더 창의
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
할이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와 업계 보고서에서 AI의 이러
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관련 연
구 논문에서는 "AI 도입이 반복적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하
는 업무를 자동화하여 직원의 웰빙과 업무 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 관련
보고서에서도 AI가 반복 업무를 줄여 직원들이 핵심 업무
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Google]

이메일 정리, 이제는 AI가 도와줍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씩 쌓이는 이메일들을 보면 관리하
기 난감하다. 이럴 때 AI 기반 이메일 정리 도구를 활
용하면 자동으로 메일을 분류해주고, 중요한 메일을
우선순위로 정리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Gmail
은 AI 기능을 통해 메일을 기본, 프로모션, 소셜 탭으
로 자동 정리해주고, 추천 답장을 제시하거나 긴 이메
일을 자동 요약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이
메일에서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AI가 분석해 사용자
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구글 캘린더에 자동으로 일정
을 등록해주는 기능도 도입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Copilot 역시 이메일 내용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톤으로 빠르게 답장을 작성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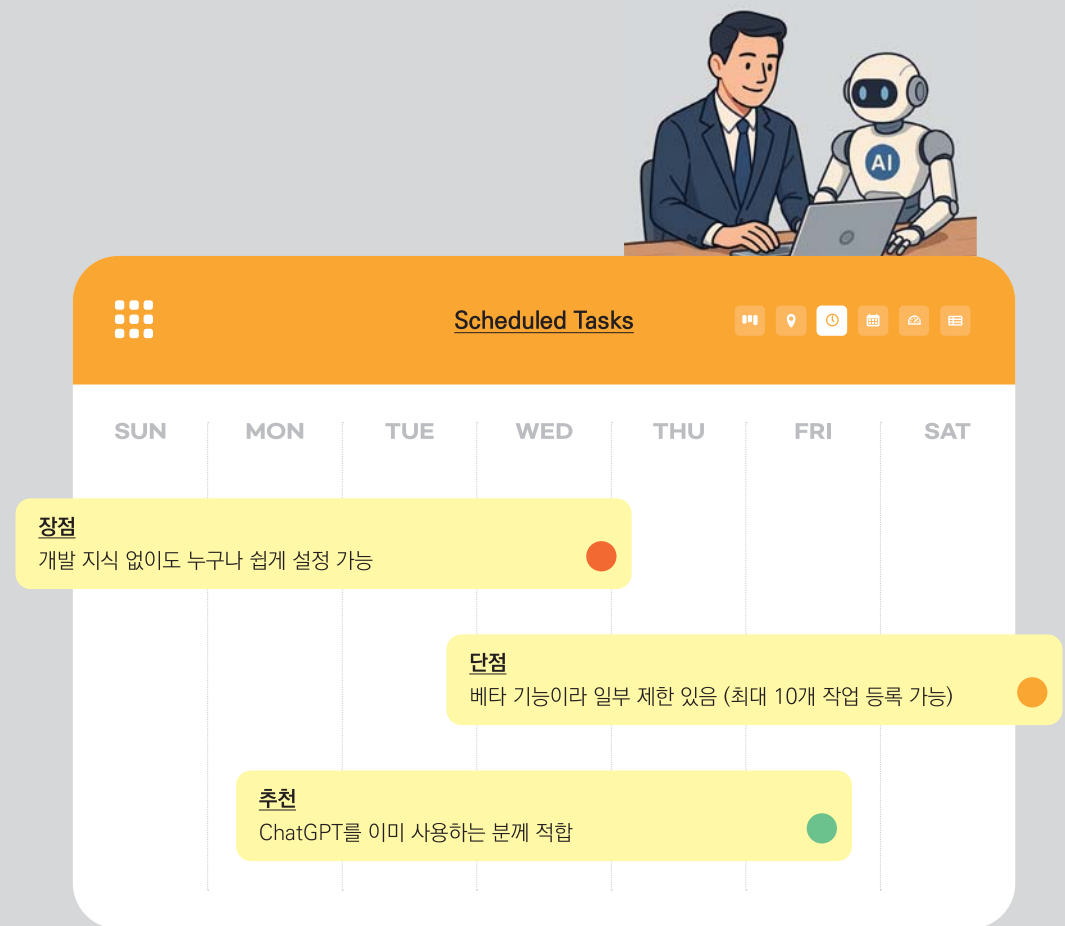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바쁜 실무자들에게 유용하
다. 단순한 문장 완성에 그치지 않고 회의 요약과 작
업 지시 정리, 일정 제안 등 실질적인 업무 흐름까지
지원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능은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줄여주고, 더 중요한 업무에 집
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

아직 모든 사내 시스템에 이런 AI 기능이 즉시 적용
되긴 어렵지만, 당장은 외부 생성형 AI(예: ChatGPT)
를 활용해 이메일 초안 작성이나 아이디어 정리에 활
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보안이 요구되거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업무는 반드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일 뿐,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용
자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정 관리도 AI에게 맡겨보세요

복잡한 회의 일정 조율이나 자주 잊게 되는 일정 알림도 이제는 AI가 대신할 수 있다. 2025년 1월 OpenAI는 ChatGPT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Scheduled Tasks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미래의 액션 및 알림을 자연어 명령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 ChatGPT를 기존 디지털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는 "매일 아침 7시 날씨 보고"나 "오후 4시 회의 알림"과 같이 간단한 요청으로 일회성 또는 반복 작업을 설정할 수 있다.

ChatGPT의 Scheduled Tasks 외에도,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다양한 AI 비서 서비스들이 스마트한 일정 관리 도구로 활약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친숙한 구글 어시스턴트는 음성 명령만으로 알림을 설정하고,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거나 확인하며, 필요한 간단한 정보까지 빠르게 검색해 주어 편리함을 더한다. 또한,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빅스비를 빼놓을 수 없다. 높은 한국어 음성 인식률을 자랑하며, 삼성 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알림 설정, 캘린더 관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 업무에 딱 맞는 AI 도구, 이렇게 고르세요!

AI 도구를 선택할 땐 아래 항목을 꼭 체크해 보세요.

기능성  내가 하는 업무에 꼭 필요한 기능이 있는가?	사용 편의성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익힐 수 있는가?	비용  예산 대비 효과적인가?	보안성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	--	--	---

문서 작성과 회의록 정리도 AI로 간편하게

회의 후 회의록을 정리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도 AI가 도와줄 수 있다. ChatGPT는 간단한 지시만으로 문서 초안을 만들고, 긴 내용을 요약하거나 맞춤법을 교정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지원한다. 또한 네이버 AI 기반의 '클로바노트' 같은 음성 기반 AI는 회의 내용을 녹음한 뒤 핵심 내용을 추출해주므로 회의록 정리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복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일수록 AI의 효율성이 빛을 발한다. 플라우드노트(PLAUD NOTE)는 ChatGPT 기반 AI 녹음기로, 음성 인식 및 분석, AI 요약뿐만 아니라 마인드맵 시각화와 같은 고급 기능을 제공한다. 통화 녹음과 스마트 클리핑(무음 제거), 오디오 파일 병합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서비스로, 의료, 영업,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특

히 아이폰에서도 통화 녹음이 가능해 출시하자마자 많은 관심을 모았다. 티로(Tiro)는 실시간 대화를 녹음하여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하고 한 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을 생성하며, 회의록과 강의 등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한다. 메모 입력을 통해 맥락 정보를 추가하면 인식 정확도가 높아지고, 영어 강연도 한국어로 실시간 번역 및 요약할 수 있어 국제 업무에 유용하다. 라벨 관리, 노트 검색, 캘린더 연동 등 강력한 노트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다양한 업무에 적용되며 직원들의 시간을 줄이고 업무의 질을 높이고 있다. 반복적인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지금이 바로, AI를 업무의 든든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간이다. 함께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일터를 만들어가자.

본사 소식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특화장비 자체 개발



우리 회사가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특화장비를 자체 개발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힘을 더했다. 발전기 기술특성시험은 발전설비의 특성 데이터를 분석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절차로 지난 2011년 전기연구원에서 한전KPS로 기술 이전됐다. 이후 꾸준한 시험 능력 향상을 통해 전력거래소로부터 500MVA(MegaVolt Ampere) 이상인 1등급 발전설비 시험기관으로 인증받았으며, 현재까지 167개 발전기에 대한 시험을 완벽하게 수행해 왔다.

한빛원전 지역주민 초청 청렴문화제 개최



3월 18일 우리 회사는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 직원 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초청한 가운데 '청렴사이렌 문화제(영광편)'를 실시했다. 이번 청렴문화제는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청렴교육을 정형화된 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뮤지컬 형식으로 전달하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높였다.

한전KPS, 자회사 운영평가서 '최고등급' 달성



우리 회사가 시설관리·미화·경비 노동자의 처우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자회사 운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한전KPS는 4개 세부 평가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며 가장 높은 'A' 등급을 받았다. 한전KPS는 사옥 시설 유지·관리, 미화, 경비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KPS파트너스'를 2020년도에 설립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처우개선에 동참한 바 있다.

서부발전과 에너지전환 교육지원 협력



우리 회사는 한국서부발전과 3월 20일 전남 나주 한전KPS 인재개발원에서 '에너지전환 대응을 위한 협력사 근로자 교육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근로자의 직무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줄여줌으로써 서부발전과 동반 성장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일환이다. 한전KPS와 서부발전은 태안발전본부 상주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60명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안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4월 23일 우리 회사가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한전KPS와 부안군을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KPS는 안산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소도시 특화 요소에 해당하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협력'의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리경영 체계 구축 및 실천으로 윤리경영 우수상 수상



우리 회사가 4월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핀란트타워에서 열린 '제5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우수상(윤경포럼 대표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아래 산업정책연구원(IPS)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주관하고 윤경포럼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한전KPS는 윤리경영 체계 구축 및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윤리위험 예방과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 정비진단 서비스 각광...고객사 신뢰도 높여



우리 회사가 공사 전 전문인력을 투입해 최적화된 정비 전략을 도출해내는 사전 종합진단서비스로 각광 받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 2011년 당진 2호기를 시작으로 2019년 신평택복합발전소 시운전 공사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발전설비 종합진단서비스를 시행해 최근까지 누적 수행실적 50건을 넘어섰다. 사전 종합진단서비스는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시행하기 전 사전에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정밀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비방안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가정의 달' 앞두고 일-가정 양립문화 증진 앞장



우리 회사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회사는 4월 28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본사 직장어린이집 재원생 30여 명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교육설비 및 놀이터 등 원시설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5월 8일에는 원생들을 회사로 초대해 재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실제 근무 중인 사무실을 소개하고,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가족 초청행사'도 진행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본사 소식

국제 원자력산업전-원자력연차대회 참여



국내 최대 규모 원자력 전문 전시회인 2025 국제원자력산업전이 4월 2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했다. 국내외 원자력 산업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으로 관련 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회사는 전력산업 관계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전시 부스를 열고 원자로 하부헤드 BMI 관통관 원격 정비로봇과 Thermal sleeve Overhaul Robot 장비를 선보이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기사랑 마라톤 참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가 지난 4월 12일 경기도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렸다. 전기사랑 마라톤대회는 전기의 날을 기념하고, 전기의 소중함과 전력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1만여 명의 전력산업 종사자가 참여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회사는 김홍연 사장을 비롯해 160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해 현장을 함께했다.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선정



우리 회사가 4월 30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4 CDP Korea Awards'에서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에 수여하는 '탄소 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영국에서 지난 2000년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단체로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 등 환경경영 수준을 평가해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전KPS는 올해 심사에서 산업부문 내 상위 4개 기업에 수여하는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산업재 부문)'에 선정됐다.

사업소 소식

경영진과 함께하는 노사합동 현장 안전점검 시행



우리 회사 김도윤 발전안전사업본부 부사장은 4월 18일 동탄사업소 판교지점(소장 김종서)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경영진과 함께하는 노사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김도윤 부사장은 판교지점 A급 계획예방정비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 안전보건경영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및 중대재해 예방활동의 철저 이행을 당부했다.

사업소 소식

한울3사업소, 4월의 한울3발전소 인 선정



한전KPS 한울3발전소(소장 장성철) 기계1부 이정길 조장이 4월의 한울발전소 인(人)으로 선정되었다. 한울3사업소장은 "냉동기 설비의 안정화 및 정비문화 개선 그리고 ECW Chiller 정비계획서 작성이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비 수행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달의 한울3발전소 인(人)으로 선정되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울3발전소 인(人)은 3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정비회사 중 모범이 되는 직원을 매달 1명을 선정하는 뜻깊고 명예로운 상이다.

고리1사업소 길천마을 자매결연 협약



고리1사업소(소장 김은식)는 지난 4월 22일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이장 김형철)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은 노사와 마을단체장이 협력하여 발전소 인접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주민들과 상호 교류 강화해 지역 상생과 발전 도모를 위해 적극 추진됐다. 또한 금년도 자매결연 길천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소 대표 사회공헌활동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보호 캠페인도 강화하기로 협약했다.

인천사업소 고객사 합동 음주안전활동강화 캠페인



인천사업소(소장 오명근)는 3월 28일 계획예방정비공사 기간 중 음주 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날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류지영 본부장 등 안전관리부 포함 18명이 본부 전 직원 및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근 시간대 음주 측정을 시행하고, 본부 안전제도 홍보 리플렛 및 간식을 배부했다. 인천발전 본부는 향후 계획예방정비공사 기간 중 지속적인 음주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한 불시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사업소, 어린이날 맞이 강릉보육원 후원 물품 전달



강릉사업소(소장 이정민)는 4월 28일 강릉보육원을 방문해 직접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강릉사업소는 백만 원 상당의 간식과 아동 및 청소년 전용 건강기능식품 등의 지원 물품을 강릉보육원에 후원했다. 이어서 강릉사업소 한마음운동단은 보육원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민 소장은 "강릉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S STORY> 어떻게 읽으셨나요?



원자력연수원 사회공헌활동 모습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원자력 코딩을 통해 미래의 인재가 될 아이들이 과학 기술을 체험하고 흥미를 갖도록 배려해주는 모습 미래의 에디슨이 탄생할 수도 있는 좋은 동기 제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 _ 박*우 님

우리 별 여행을 통해 지역 곳곳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익숙했지만, 울주군처럼 잘 몰랐던 지역의 매력까지 알게 되어 새로웠습니다. 덕분에 지도에 가보고 싶은 곳 리스트가 추가되었네요! 🍷 _ 오*림 님

KPS 클래스, '통통통통' 작은 서각 공방에서 한전KPS 경력사원들이 서각 공예를 체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쾌한 망치질 소리와 함께 나무 위에 그려지는 그림이 마치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상징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 _ 장*익 님

역사 속 빛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1.5V 건전지의 탄생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었어요. 죽은 개구리 덕분에 개발되었다는 사실도 아주 신기했고, 이후 건전지의 변화와 혁신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 _ 김*경 님

만나는 KPS에서 안중근 의사님의 정신을 서각으로 새 옷을 입히시는 염영선 작가님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전통공예와 예술품을 통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전하하려는 활동에서 존경심을 느끼는 한편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_ 홍*호 님

지난 호 정답

Q1. 팀워크
Q2. 서각

지난 호 당첨자

박*우, 오*림, 장*익,
김*경, 홍*호

※ 당첨되신 분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uiz

클스 퀴즈

Quiz 1

도전과 능력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심리 상태로, 몰두하는 동안 시간의 흐름조차 잊게 되는 이 경험은 무엇일까요?
(힌트. ㅁㅇ, p14-17)

Quiz 2

조선 성종 때 세워진 나주목 객사 건물로, 정면 5칸·측면 4칸 규모에 원교 이광사의 현판이 걸린 이곳은 어디일까요?
(힌트. ㄱㅅㄱ, p26-29)

퀴즈 정답 제출 및 모바일 염서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이동해 이번 호의 퀴즈 정답과 함께 <KPS STORY>를 읽은 소감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벤트 마감일 6월 20일까지
경품 발송일 7월 말경



와 글 와 글 K P S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KPS STORY>의 새로운 코너 '와글와글 KPS'

와글와글 KPS는 주제도 형식도 자유로운, 한전KPS 직원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회사 생활 중 느낀 점, 나만의 취미 이야기, 동네방네 자랑하고픈 이야기, 소소한 경험담 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반짝반짝한 이야기로 '와글와글 KPS'를 채워주세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신청하면
<만나는 KPS>에서
찾아갑니다!

참여 방법

주제 및 형식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구글폼(QR코드 확인)
- 마감 기한: 2025년 6월 20일까지

예시 사연 1

우리 아이가 공룡 천재 같아요.
실력 한번 보실래요?

우리 집에는 다섯 살짜리 공룡 박사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입에서 "티라노사우루스,"
"트라케라톱스," "스피노사우루스"가 떠나질 않아요.

예시 사연 2

요즘 제가 폭 빠진
취미 공유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빵 만드는 영상을 보고
베이킹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쿠키 사진도 자랑합니다.

예시 사연 3

OO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언제나 밝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우리 부서 OO부장님!
덕분에 출근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괜찮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와글와글 KPS'의 주인공입니다.

* 사연에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